

논 이용 소득형 이모작 양파-들깨 작부체계

황정동^{1*}, 서중호¹, 이휘중¹, 최원영², 김상열¹, 배현경¹

¹경남 밀양시 점필재로 20,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

²전북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 181, 국립식량과학원

[서론]

벼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쌀은 소비량 및 소득률 감소에 따라 논을 다양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동계 소득성 작물인 양파를 이용하여 이모작 작부체계 개발이 필요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양파는 다이아몬드 플러스를 9월 11일 200공 트레이에 파종하여 10월 26일 15×13cm(1두둑 8열) 정식하였고, 벼는 해당쌀을 6월 1일 파종하여 육묘한 후 30×12cm로 6월 22일 이앙하였다. 들깨는 다유들깨를 이용하여 6월 1일 128공 트레이에 파종하여 30×25cm로 6월 22일 정식하였고, 생육특성, 수량성, 소득 등을 조사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양파-벼와 양파-들깨 작부체계에서 양파의경장은 71~72cm이고 경수는 7.6~7.8개로 수량은 양파-벼에서 5,851kg/10a이고 양파-들깨에서 5,828kg/10a로 소득이 198~199만원이었다. 벼는 간장 66cm, 수수 15개, 천립중이 21.5g으로 수량이 589kg/10a로 소득이 65만원으로 낮았다. 들깨는 경장이 155cm, 화방군수 82개, 천립중이 3.8g으로 수량이 190kg/10a로 소득이 123만원으로 벼보다 높았다. 양파-벼 작부체계의 총 소득은 264만원이고 양파-들깨 작부체계의 총 소득은 320만원으로 양파-벼 작부체계보다 소득이 21% 높아 양파-들깨 작부체계가 유망하였다.

[사사]
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(과제번호: PJ011549022017)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

*주저자: Tel. 055-350-1166, E-mail, hcd0094@korea.kr